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근본방도에 대하여

(미국연구소 소장의 발언문)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회의에 초청하고 환대하여 준 안톤 워포로비치 홀로쁘코브소장을 비롯한 로씨야에네르기 및 안전센터와 로씨야외무성의 벗들에게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

나는 이번 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반도문제의 근원적해결을 추동하는 의의있는 마당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조선반도의 최근정세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의 근본방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지난해 6 월 12 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이정표적인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

그후 진행된 하노이조미수뇌상봉과 회담,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조미쌍방은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려정에서 부닥치게 되는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들을 극복하고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갈데 대해 합의하였다.

1 년 남짓한기간 3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들은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한 조미 두 나라 수뇌들의 정치적의지를 밝힌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으며 우리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들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두 나라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보내였으며 조미관계개선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미국의 차후행동과 상응조치를 주시하면서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신뢰구축을 위하여 취한 증대조치들을 국제사회와 미국내를 향한 광고용으로 써먹는데만 머리를 굴리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신뢰를 말아먹는 행동만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 야합하여 끝끝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항시적인 근원으로서 그 공격적성격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 없으며 크지 않은 조선반도주변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대거 투입되는 명명백백한 핵전쟁공격훈련, 사소한 오판도 즉시 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게 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이때문에 트럼프대통령까지도 여러차례 합동군사연습을 《전쟁게임》으로 묘사하면서 판문점조미수뇌상봉시 다시한번 그 중지를 공약한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방위》의 미명하에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음으로써 조미대화국면을 주시하던 국제사회를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우리가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를 겨냥한것이며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정신에 대한 위반으로서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고 루차 경고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끝끝내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그런가 하면 미국외교수장이 대화일방에 대한 적반하장격으로 만일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력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수 있도록 할것이라는 발언도 꺼리김없이 하였다.

이것은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이후 미국정책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발언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에 과연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의지가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외교관계자들이 《새로운 방법》과 《창발적인 해결책》에 기초한 대화에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오면서 실무협상개최를 지못게 요청해왔으므로 미국측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옳바른 사고와 행동을 할것이라는 기대와 락관을 안고 스톱홀름실무협상에

림하였다.

그러나 스톡홀름실무협상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우리의 자제력과 아량을 오관하고 조미대화를 저들의 당파적리익에 복종시키면서 시간을 끌려 한다는것을 보다 명백히 알게 한 계기로 되었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스톡홀름실무협상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저들의 국내정치일정에 조미대화를 도용해보려는 정치적목적만을 추구하면서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아직도 령전식사고와 이데올로기적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있는 워싱턴정가와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작성자들에게 있다.

한편 지금 미국내에서는 스톡홀름조미실무협상결과와 관련하여 북조선이 제재해제를 바란다는것이 명백하다느니, 미국이 선택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고있다.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루한 말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으나 이 자리에서 한가지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이 아직도 우리에게 대한 제재압박을 문제해결의 열쇠로, 그 무슨 《지레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재 그 자체는 우리 국가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우리 자주권과 인민의 리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응당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이 그토록 우리에게 대한 제재압박에 매여달리는 목적도 단순히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압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리념적 및 사상적적대시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그 자체를 말살해버리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제재해제따위에 목이 말라 국가의 근본리익을 팔아먹는 짓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

그 분노는 단순히 제재 그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해온 미국과 반드시 결산하고 그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야 한다는 우리 인민의 대미민심의 발현이며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자력으로 부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의지의 분출이다.

우리는 제재로 하여 지금 당장 화려하게 변신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자력자강으로 잘 살고 발전해나갈수 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전혀 가늠할수도 이해할수도 없는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우리 국가가 전대미문의 제재압박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창조하고 종합적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게 한 백년대계의 보검이며 세상천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리상하는 모든것을 이룩할수 있게 해주는 필승의 처방이다.

미국이 아직도 제재따위를 가지고 그 무슨 결과물을 얻어보려고 하는것은 삶은 닳알에서 병아리가 까나오기를 기대하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적들이 제재압박의 쇠사슬로 숨조이기를 하려들면 들수록,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며 계속 잘살아나갈것이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정세전망과 문제해결의 근본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히 되돌릴수 없게 철회할 결단을 내리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있다.

조미수뇌들사이에 형성된 친분관계에 의하여 조미관계가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되고있지만 우리 국가의 대미정책은 민심을 반영하게 되어있다.

우리 인민의 대미적대감이 총폭발할 때 조미관계에 어떤 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현재 조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수 있는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있다.

미국이 조미수뇌들사이의 개인적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올해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금후 조선반도의 정세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만일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요술을 부린다면 그것은 미국외교사상 최대의 파오, 최대의 실수로 되어 력사에 치욕의 한페이지를 남기게 될것이다.

나는 이번 모스크바전과방지회의가 국제적정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력량의 단결과 노력을 고무추동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다시한번 표명하는바이다.

온갖 부정의가 살판치는 오늘날의 국제무대에서 국제적정의를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지배와 간섭이 없고 전쟁을 모르는 세계에서 화목하게 살려는 인류의 리상과 념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Неофициальный перевод¹

ОБ ОСНОВНЫХ СПОСОБАХ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²

Ещё раз выража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Центру энерге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ежде всего его директору, Антону Викторовичу Хлопкову, а также товарищам из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на эту Конференцию, радушный приём и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ить с этой трибуны.

Надеюсь, что эта Конференция достигнет желае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станет значим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пол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Я же хочу выразить нашу позицию по повод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 также в отношении основных способов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Состоявшиеся 12 июн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стреча и переговоры лидеров КНДР и США стали фактором улучшения самых враждебных в мире на тот момент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 также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имеющим эпох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в деле достижения длительного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путём пол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состоявшихся после этого встречах и переговорах в Ханое и Пханмунчжоме двумя сторонами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о том, чтобы преодолев все преграды и затруднения, которых нельзя избежать на пути создания новой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озобновить и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ть продуктивный диалог с целью осуществлени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ри раунда встреч и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лидерами США и КНДР чуть более года назад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аличие у глав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политической воли покончить с враждебностью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обеспечить мир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ы сделали всё, чтобы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дух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встреч и переговоров, построить довер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горячо откликнулось на такое развитие событий и поддержало его,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я за последующими шагами и ответ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о стороны США, испытывая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к вопросу улучшения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имея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на этот счёт, искренне желая, чтоб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установился длительный мир и стабильность.

¹ Неофициальный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К.А. Усов. © Центр энерге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² Текст выступления Чо Чхоль Су, Президента Института америка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Д КНДР, в рамках Москов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 2019. 8 ноября 2019 г., Москва, Россия.



Однако США позаботились лишь о том, что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ши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по построению доверит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для пропаганды,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и внутреннюю аудиторию. Он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думают о том, чтобы предпринять ответные меры, а наоборот, остаются настойчиво привержены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и осуществляют только подрывающие доверие действия.

Конкретный показательный пример этого –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всё ещё проводимые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ей в сговоре друг с другом.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 причина постоян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Ничто не может утаить их наступ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они совершенно очевидно являются учениями по отработке ядерного удара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в небольшой по размерам район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активов США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Это крайне опасная игра с огнём, влекущая за собой вероятность при малейшей ошибке оказаться в разгаре ядерной войны.

Поэтому даже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азывал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играми в войну» и снова пообещал прекратить их на встрече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Однако спустя лишь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после этой встречи Америка снова провела уч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назвав их «оборонительными», и тем самым повергла в шок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вшее за развитием ситуации в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ы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и, что эти учения от начала и до конца направлены против нас, и предупреждали, что если они всё-таки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в нарушение духа встреч и переговоров США и КНДР, то это скажется на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Тем не менее США проигнорировали это 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лишь форсировали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глава американ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без каких-либо колебаний говорил, переключаясь с большой головы на здоровую, о том, что если другая сторона диалога не осуществит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то США поддержит «самые жёсткие санкции» и постарается удостовериться в том, чтобы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пошла по верному пути. И это – только малая часть тех враждебных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м заявлений, которые доносились из уст американ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деятелей после встречи в Пханмунчжоме.

Такие действия со стороны США заставили нас сомневаться в том, что у США на самом деле есть политическая воля улучшать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Однако американские дипломаты, ответственные за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сылали нам сигналы о том, что они готовы к диалогу, основанному на «новых подходах» и «инициативных методах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а также назойливо требовали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Мы, преисполненные оптимизма и надежды на то, что США, имея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достаточно времени, перейдут к правильным мыслям и действиям, прибыли



на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в Стокгольм. Но переговоры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ясно дали нам понять, что США неправильно расценивают нашу сдержанность и великодушие, подчиняют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диалог интересам их партий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и тянут время.

Проясним ещё раз: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асхождение позиций на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ах в Стокгольме лежит на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 Вашингтона, а также на тех, кто составляет политику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в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н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были готовы к переговорам, намеревали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диалог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вестке дня своей страны, преследовали только политические цели. Их помыслы были далеки от взглядов и стремл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до сих пор «запертые в клетке»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предрассудков и мышления времён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они были настроены враждебн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ейчас в Америке по поводу результатов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в Стокгольме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здаются голоса и о том, что желание КНДР о снятии санкций совершенно очевидно, и о том, что США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енять свой подход.

Не чувствуем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аждый день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все эти высказывани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даже близко не представляют о чём говорят, но есть одна вещь, которую я не могу не упомянуть с этой трибуны: США до сих пор рассматривают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на нас в качестве ключа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некоего «рычага давления».

Санкции сами по себе являются нестерпимым оскорблением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ягательством на наш суверенитет и интересы народа, поэтому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закономерным, что их нужно отменить.

Цели такой сильной приверженности США санкционному гнѣту заключаются не просто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мирного давления» рад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а в стремлении уничтожить наш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народ, которые хотя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жить и развиваться, лишить их прав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разрушить нашу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и идейной враждеб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м.

Однако мы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станем торговать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и интерес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из-за желания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санкций и подобных им вещей.

Как разъяснил товарищ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страдания, навязанные нашему народу враждебными силами, теперь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народный гнев.

Этот гнев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 просто зл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нкциям как таковым, а прояв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нашего народ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ША, которо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нужно обязательно свести сѣты с Америкой, котора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истории причиняла неисчислимые боль и страдание нашей нации, и заставить США расплатиться за всё это сторицей.



Этот гнев – манифест воли народа преодолеть санкционный гнёт враждебных сил и во что бы то ни стало заставить подняться возрождаемую своими усилиям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Из-за санкций мы не можем прямо сейчас совершить ярко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но, полагаясь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мы сможем хорошо жить и развиваться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сколь угодно долго.

Ни Америка, ни другие враждебные страны не могут рассчитать и понять духовную силу идей выживания за счёт собственных усилий, опоры на самого себя. А ведь она – самый гла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столетнего плана,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л нашему государству в условиях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санкционного гнёта создавать поражающие людей по всему миру чудесные вехи истории, поднимать на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омплексную мощь государства. Именно эта духовная сил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ецепт неперенной победы,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нам достигать всего, о чём мы мечтаем, в не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ак меняется мир вокруг нас.

То, что Америка до сих пор намеревается получить какой-либо результат путём санкций и подобных мер, ещё более глупо, чем ожидать, что из варёного яйца вылупится цыплёнок.

Как бы не пытались враги сдавить железными цепями санкционного гнёта наше горло, изолировать и подавить нас всё более коварными и зловещими способами, мы, взяв на вооружение великий дух выживания за счёт собственных усилий, своим трудом расчистим себе путь вперёд и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жить благополучно.

Как было объяснено ранее, перспективы улучш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сновные способы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заключаются в том, чтобы США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полностью и безвозврат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и подтвердили его действиями.

Хоть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до сих пор посредством сформировавшихся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двух стран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литика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мерике стала отражать настроения народа.

Никто не может предсказать, какая кр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может 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в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когда враждебность нашего народ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ША достигнет апогея.

Объективно говор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не наблюдается реального прогресса, продолжают самые что ни на есть отношения противоборства, когда в любой момент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обмен враждеб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Если Америка намеревается, используя личные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лидерами США и КНДР, тянуть время и легко перешагнуть конец нынешнего года, то это лишь глупые иллюзи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ерспективы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лностью зависят от того, какой выбор сделают США.

Если Америка не примет реальные меры по отмене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и до последнего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выкидывать фокусы, то это станет самым большим просчётом, самой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ысли и останется постыдной страницей в истории.

Ещё раз выражаю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нынешняя Москов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станет значим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идания нового стимула сплочению и усилиям прогрессивных сил, которые любят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сражаются за неё.

Когда на сегодняшней мировой арене, где царит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самых разных формах, зазвучит коллективный голо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идеалы и мечты человечества, желающего гармонично жить в мире, в котором нет господства и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и который не знает, что такое война.